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所在 見聞錄의 展開 樣相*

정훈식** · 남송우***

차 례

- | | |
|-----------------------------|----------------------------|
| 1. 머리말 | 1) 17세기: 見聞錄의 著述意識과 體裁의 형성 |
| 2.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소재 見聞錄의 현황 | 2) 18세기: 見聞錄의 多變化와 知識 추구 |
| 3. 見聞錄의 연원: 『海東諸國記』와 壬亂捕虜實記 | 5. 마무리 |
| 4.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소재 見聞錄의 전개 |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전해오는 견문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대별 흐름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통신사행록에 전해오는 견문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약 40여 편의 통신사행록 가운데 18편이 확인된다. 이중 17세기에는 8편, 18세기는 10편이 전해온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저술에 형식적 모델을 제시하고 서술태도에 영향을 준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경대학교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대의 텍스트는 신숙주의 『海東諸國記』와 강항의 『看羊錄』, 정희득의 『月峯海上錄』 등의 임란포로실기이다. 이들 텍스트는 약 2세기에 걸쳐 저술된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 소재 견문록의 저술방식과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견문록 저술의 연원이라고 보았다.

시대적 전개에서 조망해본 견문록은 크게 ‘견문록 저술의식과 체제의 형성기’와 ‘견문록의 다변화와 지식 추구를 지향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된다. 초기의 견문록은 견문록을 저술하는 의식도 미약하여 단지 통신사행록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데 머물렀으며 아울러 그 체제도 체계적인 면모를 띠지 못했다. 이후에 점차 견문록에 대한 저술의식이 강화되고 그 형식도 체계화 되어갔다. 18세기에 들어서서는 통신사행록에서 견문록은 매우 다채롭게 저술되었다. 특히 계미통신사행에 이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일본관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견문록이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생성의 핵심 기반인 통신사행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쇠퇴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던 견문록의 일본 지식의 추구는 급격하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제어 : 통신사행록, 견문록, 『해동제국기』, 임란포로실기, 저술의식, 남용익의 『부상록』, 지식 추구, 신유한의 『해유록』, 계미통신사행

1. 머리말

이 글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수록되어 전해오는 견문록의 통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 사행록은 한·일 외교는 물론 문학·역사·민속·문화 등 일본의 다양한 영역들을 풍부하게 기록해 둔 복합 텍스트이다.¹⁾ 최근 통신사행록이 문학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

1)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5, 94~115쪽. 기실 여기서는 1682년에서 1763년 사이의 통신사 문학에 국한하여 텍스트 구성에서 있어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행록 전반으로

다채롭게 조명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통신사행록이 당대 한·일 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담고 있는 복합 텍스트임을 말해준다.²⁾ 즉 통신사행록은 통신사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모든 사행과정과 사건의 실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조선후기 한·일 문학교류의 양상, 역사적 사실, 문화적 실상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가 견문록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신사행록의 이 같은 다양한 성격 중에서 조선후기의 일본 관련 지식이 생성되는 주요 경로를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데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견문록은 무엇보다 해외 지식으로서의 일본을 기록한 텍스트이자 일본 지식의 형성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특히 日記·詩文唱和集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일본에 관한 여러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텍스트란 점이 두드러진다. 시와 일기는 대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대상을 접하는 순간을 스케치하여 기록한 것이 대부분인 까닭에 다분히 인상적이며 감상적이다. 이에 반해 견문록은 구체적인 정황에서 일어나는 감정과는 다소 거리를 둔 채 비교적 이성적인 상태에서 보고 들은 것을 재구성한 성격이 짙다. 물론 여기에는 일기와 시문의 영향을 받아 감성적 인식 성향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³⁾ 이처럼 사행록의 여러 양식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이 있지만 이중 견문록은 바로 일본을 지식의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확대되어도 무방한 논의이며, 아울러 구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통신사 사행록이 지닌 성격을 논할 때에도 적절한 지적이다.

- 2) 최근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조규익·정영문 엮음, 학교방, 2008)는 통신사행록의 연구 성과를 한곳에 모으면서 분야별 분류를 통해 엮어 놓았다. 이는 통신사행록의 다방면적 특성상 그동안의 연구가 텍스트를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접근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분류상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지만 통신사 연구를 집대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 3) 물론 일기 등의 글에서도 견문에 해당하는 글이 매우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견문록이란 형식으로 묶인 글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한 연구 성과는 드물어, 이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다. 그리고 추후 견문록 이외에 보이는 견문기록도 비교하여 살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양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

그간 견문록에 대한 연구는 사행문학의 일부로 간주하고 연구되었으며, 그 문학성의 영역 안에서 고찰되었다.⁵⁾ 그러나 견문록의 성격이 변화해온 과정을 보면 오로지 문학적인 성격으로만 고찰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것이 실상이다. 견문록은 거듭해서 저술될수록 지식 성향이 강화되고 급기야 사행록에서 독립되어 별도의 저술로 이루어지기에 이른다. 이는 견문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적 성격은 물론 지식적 성격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그 견문록의 지식 추구의 과정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견문록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살필 것이다. 물론 시대적 흐름을 고찰한다는 것은 선형적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역사적 흐름에는 단절과 연속이 반복 되는 것이 그 실상이지만, 전개과정을 살핀다고 하면 우선 연속성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고 진행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통신사행록은 그 저술과정에서 개인의 체험이 제일 우선이지만 전대 사행록의 영향력도 대단히 컸다. 자신의 사행에 지침서 역할을 한 책을 개인마다 한 권씩은 꼭 지니고 있었음은 물론 사행 뒤에 기록을 남길 때에도 전대 사행록은 저자의 체험과 뒤섞이면서 그 기록으로 스며들었다.⁶⁾ 이러한 통신사행록의 기록적 특성은 계기성과 연속성을 어느 장르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그 전개과정을 살피는 일은 사행록에 드러나는 이러한 계기성과 연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4) 견문록의 문체를 한문학에서는 잡기의 하나인 필기체로 간주한다. 필기체는 그 특성상 지식추구의 취향에 의해 저술되고 향유된다. 필기를 읽고 쓰는 것은 지식의 생산과 수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陳必祥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 문체론』, 이희, 1995, 128~146쪽 참조.

5) 한태문, 앞의 논문, 26~34쪽. 실제로 견문록의 성격을 다룬 연구 성과는 이 외에는 드물다. 대개 부분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개별 작품에 국한하여 다루고 있어 전체적인 고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이는 연행록에서도 함께 드러나는 특징이다.

2.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소재 見聞錄의 현황

현재까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견문록은 모두 18편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⁷⁾

使行年度	著者(職責)	통신사행록 표제	견문록 제목	비고
1607	慶暹(副使)	『海槎錄』	없음	항목 나누지 않음
	李景稷(從事官)	『扶桑錄』	없음	항목 나누지 않음
1617	朴樸(副使)	『東槎日記』	없음	일부 항목별 서술
1624	姜弘重(副使)	『東槎錄』	「聞見總錄」	항목 나누지 않음
1636	金世廉(副使)	『海槎錄』	「見聞雜錄」	항목 나누지 않음
	黃原(從事官)	『東槎錄』	「聞見總錄」	항목 나누지 않음
1643	趙綱(副使)	『東槎錄』	「畫舫樓船說」·「關白說」·「題日本姓氏錄」·「倭國三都說」	견문록에 해당하는 이름 없이 각각의 표제를 달고 있음
1655	南龍翼(從事官)	『扶桑錄』	「聞見別錄」	항목별 서술
1711	任守幹(副使)	『東槎日記』	「聞見錄」·「海外記聞」	항목별 서술
1719	申維翰(製述官)	『海游錄』	「聞見雜錄」	항목 나누지 않음
	鄭后僑(子弟軍官)	『扶桑紀行』	없음	항목 나누지 않음
1748	洪啓禧(正使)	『日觀要攷』	없음	국서 등의 공문서와 함께 엮음. 항목별 서술
	曹命采(從事官)	『奉使日本時聞見錄』	「聞見摠錄」	항목별 서술
	未詳	『日本日記』	「倭京」·「江戶」·「對馬島」·「總論」	「총론」에는 항목 나누지 않음
1763	成大中(書記)	『日本錄』	「日本錄」·「靑泉海游錄抄」	신유한의 「문견잡록」을 재구성하여 수록
	南玉(製述官)	『日觀記』	「總記」	항목별 분류
	元重舉(書記)	『乘槎錄』	『和國志』	단독 저서
	吳大齡(漢學上通事)	『溟使錄』	「追錄」	항목 나누지 않음

7) 민족문화추진회 간 『해행총재』와 辛基秀·仲延宏 편집, 『大系朝鮮通信使』를 주요 텍스트로 삼되,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각주에 소장처를 부기한다.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행록들-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역사학보』 112집, 역사학회, 1986)을 통해 연행록의 전반적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扶桑紀行』, 『日觀要攷』 등의 자료를 제공해주신 하우봉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조선후기에 통신사행은 1607년 回答兼刷還使에서 시작하여 1811년 對馬島易地聘禮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⁸⁾ 이를 통해 약 40여 편의 통신사행록이 전해온다.⁹⁾ 이 가운데 견문록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나 혹은 별도의 견문록은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682년, 1811년 통신사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을 통해서 모두 전해온다.

우선 이를 통시적으로 개관해보도록 한다. 저자의 직책을 중심으로 보면, 17세기에 주로 종사관·부사 등 삼사 중에서 견문록을 저술했지만, 18세기에 들어서는 제술관, 서기, 역관 등에 의해 저술 된 것이 더 많이 보인다. 특히 후기로 들어서면서 분량이 많아지고 편수도 늘어나는데 1763년 계미통신사를 통해 저술된 견문록은 4편에 이른다. 이는 단순히 저자층이 다변화 되고 견문록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머물지 않는다. 뒤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서기와 제술관 등이 남긴 저술은 대체로 삼사들이 남긴 견문록에 비해 훨씬 체계적이며 자세한 것은 물론, 새로운 내용을 수록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하면 삼사가 남긴 견문록은 대개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답습한 것이 많고 간략하다. 17세기 전반에 남긴 견문록을 보면 대개 그러하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한 세기 동안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이 관습적으로 저술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행에서 일어난 사건, 혹은 이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대상을 기술한 내용이 많이 확인된다. 다만 여기서는 18세기에 비해 그 다양화와 변화의 흐름이 매우 더뎠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소재 견문록은 크게 17세기에 남긴 견문록을 전반기의 것으로, 18세기의 것을 후반기 견문록으로 조심스럽게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구분은 통신사행록 전반에서 다를 때 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식화된 시기구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의 역사적 전개를 조망할 때 대

8) 통신사행이란 명칭은 공식적으로 1636년 사행에서 비롯되지만, 임란직후 다녀온 그 앞의 사행까지도 통칭하기로 한다. 한태문, 앞의 논문, 6~5쪽.

9) 『해행총재』, 『대계조선통신사』, 그리고 하우봉, 앞의 논문을 토대로 살핀 결과임.

체로 ‘교린체제 모색기-확립기-안정기-와해기’로 그 시대를 구분한다.¹⁰⁾ 통신사사행록의 전반적인 전개를 고찰할 때 이는 학계에 어느 정도 공인된 시대구분이다. 그러나 이제 통신사 사행록에 포괄된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전문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여러 형식의 고유한 성격과 특징은 물론 그것만의 고유한 전개과정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형식들이 나름의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면서 고유한 역사적 흐름을 보인다고 했을 때 통신사행록의 전반의 흐름과는 다소간 비교되는 독자적인 흐름을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가설적 단계로 나눈 견문록의 시기구분은 통신사행록의 역사적 전개와 비교하면서 그 구분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見聞錄의 연원: 『海東諸國記』와 壬亂捕虜實記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견문록의 체재와 내용을 보건대 이것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연원은 조선초기와 임진왜란 전후에 있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1472년에 저술된 申叔舟의 『海東諸國記』는 조선통신사에게 필수서책으로 인식되었을 만큼 사행의 모든 영역은 물론 사행기록의 저술에서도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사행원이 지녀야 할 일본에 대한 태도와 원칙에 대한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해동제국기』의 주된 내용은 日本, 琉球 등의 나라와 교류를 잘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 교활한 일본에 대한 경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항구적인 교류의 원칙을 문체 삼았던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 할 때 경계 보다는 교린에 기본입장을 두고 이를

10) 한태문, 앞의 논문, 40~138쪽.

위해 교류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세우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초는 상고시대부터 이어온 한·일 교류사와 현황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¹¹⁾ 눈여겨 볼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비록 유구에 국한되지만 동남아시아 제국까지 관심영역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소박하지만 지정학적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다. 일본 이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까지도 관계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동제국기』는 조선전기까지 일본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총합하여 가장 잘 정리한 당대 최신의 일본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들어서서도 이 책은 통신사의 핵심 지침서가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후기의 일본 지식 축적의 시스템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기원을 둔다. 특히 조선통신사행록에서의 記述의 틀은 『해동제국기』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동제국기』는 크게 서문과 7장의 지도, 日本國紀, 琉球國紀, 朝聘應接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각각 세부항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日本國紀: 天皇世系·國王世系·國俗·道路里數·八道六十六州·對馬島·壹岐島
- 琉球國紀: 國王代序·國都·國俗·道路里數
- 朝聘應接紀

여기서 특히 일본국기에 보이는 항목은 통신사행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리적 경계, 역사, 물산, 풍속 등의 서술 순서와 내용 범주설정 등 모든 부분에서 통신사 사행록은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다. 임란을 종결시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명나라 장수를 따라 다녀온 黃愼의 『日本往還日記』(1596)도 뒷부분에 별도의 제목 없지만 견문록 형태의 글이

11) 손승철, 「해동제국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일본국기와 유구국기의 내조기사를 중심으로-」, 강원인문논총 15집, 강원대인문연구소, 2004.

보이는 데 그 내용은 地勢·地理·天皇·官制·錄目·國民·物産·風俗·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순서의 뒤바뀜과 다소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동제국기』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계미통신사행을 다녀온 元重擧는 『和國志』를 저술하면서 『해동제국기』를 인용하여 기술하였다고 분명히 밝혀두었다.¹²⁾ 근 300여년이란 시차가 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해동제국기』는 통신사행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했음은 물론, 견문록 저술의 모델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동제국기』는 통신사행록 소재 견문록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하나의 연원으로 姜沆의 『看羊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등의 壬亂捕虜實記를 들 수 있다.¹³⁾ 이들 포로실기는 적중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 매우 생생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나, 포로라는 저술자의 처지로 인해 적에 대한 경계심 적개심 등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특히 『간양록』은 「敵中奉疏」, 「敵中聞見錄」,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 「涉亂事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이 견문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둘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적중문견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아래의 항목은 「倭國百官圖」, 「倭國八道六十六州圖」,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항목의 선택과 배치만 보더라도 적대적 시각에서 일본을 보고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의 이면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감정적 대응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강항은 이번 전쟁이 허술한 변방대책과 일본사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비하여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했음을 지

12) 원중거 지음, 박재금 옮김, 『화국지』, 소명, 2006, 392쪽.

13) 이미 한태문은 견문록의 연원으로 해동제국기를 거론한바 있다. 한태문, 위의 논문, 58~59쪽. 여기서는 이에 덧붙여 통신사행록 견문록의 서술 태도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포로실기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자 한다. 포로실기에 대해서는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3. 참조.

적하였다.¹⁴⁾ 겉으로는 적대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오히려 조선의 안일한 변방대책과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그 핵심이다. 이로 보면 『간양록』은 일본에 대비하는 방책을 매우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기술한 책이라 평할 만하다.

이러한 포로실기는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심리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포로실기의 주된 대일 정서인 적대감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견문록에 그대로 이어진다. 비록 포로와 사신이라는 처지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적대적 입장은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감이 18세기까지 그 강도가 일관된 것은 아니다. 17세기 견문록은 포로실기와 거의 동일한 강도로 적대감이 드러나는 데 비해 18세기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사행의 심리적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적대감이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일본의 다른 측면을 보고자 하는 노력, 일본의 장점과 발달한 측면에 대하여 냉정하게 인정해주고자 하는 점 등이 빈번히 확인된다. 이러한 점이 전체적으로 적대감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대감은 임란이후 전개된 통신사행을 거쳐 생성되는 기록에 항구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임진왜란을 통해 더욱 공고히 형성된 조선침략의 공포를 없애기란 그만큼 지난한 것이었다. 당연히 견문록에도 포로실기와 유사한 심리적 상태가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견문록을 보면 대상에 대한 기술과정에서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상을 두고 모두 예와 화이론적 관점에서 재단 한 것 등은 모두 적대감의 자취가 남은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견문록은 그 서술방식과 태도에서 『해동제국기』와 포로실기에 그 연원을 둔다. 때로는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도 그들과 신의에 바탕을 둔 교린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때로는 오랑캐로 취급하면서도 그들의 장점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 등은 위 두 연원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

14) 강항, 『간양록』, 『해행총재』Ⅱ, 민족문화추진회, 1974, 183~185쪽.

은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일본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대책을 세우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다만 시기에 따라 둘 중 어느 하나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4. 朝鮮後期 通信使行錄 소재 見聞錄의 전개

1) 17세기: 見聞錄 著述意識과 體裁의 형성

17세기의 견문록은 모두 8편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임란 이후 조선 통신사의 공식적인 대일관계의 원칙은 신뢰에 바탕을 둔 선린우호이나 통신사행록에는 화이론적 관점, 임란의 상처에 영향을 받은 적대감 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조선후기 사행록을 통해보면 이 같은 화이론적 관점에 기반한 서술이 대부분이다.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한 동안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와중에도 통신사행록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¹⁵⁾ 그러나 17세기에 이 같은 변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난다. 아래에서는 각 견문록을 개관하되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慶暹의 『海槎錄』과 李景稷의 『扶桑錄』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서 확인되는 견문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텍스트이다. 『해사록』은 일기의 말미에 제목 없이 일본에 대한 여러 견문을 실어놓았다. 『부상록』 역시 일기 뒤에 견문을 제목 없이 부기했다. 두 작품에서 이경직의 『부상록』에 있는 내용이 상세하다. 우선 서술 대상에서 들은 차이를 보인다. 『해사록』에는 地勢·起源·天皇·關白·量田·養兵·築城制度·物産·姓氏

15) 견문록은 애초에 왕명으로 이웃나라의 풍속과 예절을 미리 알아둬으로써 그들을 대함에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본의 정세를 조선에 알리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한태문, 앞의 논문, 59쪽 참조.

· 刑罰 · 風俗 · 婚禮 · 男女 · 僧侶 · 葬禮 · 姜沆의 逸話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에 비해 『부상록』은 훨씬 다양한 견문을 기록했다.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勢 · 8道66州 · 山水 · 物産(鑛物, 動物, 海産物, 實果, 菜蔬, 花草) · 風俗 · 婚禮 · 刑法 · 葬禮 · 家屋制度 · 飲食 · 器皿 · 文章 · 尊稱語 · 衣服(男女, 冠帶, 冠, 신발) · 官制 · 關白 · 天皇 · 祿俸 · 田制 · 마을제도 · 백성의구분 · 賦役 · 俗節

이중 8도66주 · 가옥제도 · 존칭어 · 백성의구분 · 속절 등은 『해사록』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며, 특히 백성이 담당해야 할 부역 등을 통해 덕천막부 정치의 한 단면을 읽어 내는 대목은¹⁶⁾ 이후 사행록에서도 계속 보이는데 아마 여기에 연원을 둔 듯하다. 전반적으로 『부상록』은 항목별로 나누지 않았으나 매우 체계적이고 비교적 항목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朴棹의 『東槎日記』(1617) 소재 견문록은 경섭의 『해사록』이나 이경직의 『부상록』처럼 별도의 제목은 없으나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항목으로 분류된 견문록 중에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그런데 항목별 분류가 완전하지는 않아 일부는 제목이 없이 문단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항목의 제목이 있는 것은 國土山川 · 市井 · 宮室 · 風俗 · 衣冠 · 飲食 · 兵物 · 負役 · 刑罰 · 喪葬 · 婚姻 · 節日까지이고, 나머지 8도66州 · 官制 · 實果 · 天皇 등의 항목은 그 제목을 달지 않았다.¹⁷⁾ 이처럼 『동사일기』의 견문록은 비록 체제가 불완전하고 간략하나 항목

16) “농민은 가장 고생하나 다만 1년 치 세를 거둔 후에는 딴 부역이 없다. 모든 사역에 모두 품삯을 주고 다만 성을 쌓는 역사만은 통틀어 징발한다 하였다. 이러므로 관백 이하 대소 장군들이 출입할 때에는 부마를 징발하는 일도 없고 참로에 공궤하는 비용도 없으며, 음식과 방옥은 모두 대가가 있다 한다.” 이경직, 『부상록』, 『해행총재』 III, 154쪽.

17) 辛基秀 · 仲尾宏 責任編輯, 『善隣と友好の歴史 大系朝鮮通信使』 1권, 明石書店, 1997, 194~195쪽.

별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624년 3차 통신사행 때는 姜弘重의 『東槎錄』(1624)에 「聞見總錄」이 수록되어 전해온다. 강홍중의 저술에서부터 견문록에 표제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견문록이 독자적인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항목은 나누지 않고 地勢·名勝地理·物産(地域特産, 海物, 皮物, 果實, 菜蔬, 짐승, 花卉)·宮室制度·衣服·飲食·器皿·民俗·性情·冠婚喪祭·學問·俗節·神祀·音樂·天皇과 關白·官爵의 제도·政治의 특징(軍政)·田賦와 田制·百姓·나라의 사정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대개 일반적인 내용을 반복하여 서술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주관적 서술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나라의 풍속이 원래 글을 배우지 않아 위로 천황부터 아래로 서민까지 한사람도 유식한 자가 없다.¹⁸⁾

강홍중은 일본의 학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당대 일본에는 학문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의 유학이 발흥하는 시기이며, 이를 주도한 학자로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학문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 동향에 대하여 강홍중은 무지하였거나 혹 알았어도 무시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기술이다. 실제로 후지와라 세이카는 강항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에 알게 되어 그에게 주자학을 전해주고 돌아와서는 “조선국 3백년에 아직 이러한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며 조선에 일본의 지식인의 존재를 널리 알렸다.¹⁹⁾

18) “其國之俗, 本不爲文, 上自天皇, 下至衆庶, 無一人識字者.” 강홍중, 「문견총록」, 『동사록』, 『해행총제』 III, 민족문화추진회, 285쪽.

19) 이노구치 아츠시 지음, 심경호·한혜원 옮김,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2000, 281~289쪽.

1636년에 다녀온 통신사행에서는 金世濂과 黃暉가 견문록을 남겼다. 우선 金世濂의 『海槎錄』에는 「見聞雜錄」이 전해온다. 여기에도 특별히 항목을 나누지 않고 調興事件(國書改作 事件)과 통신사를 청하게 된 이유·덕천막부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일본의 지리·물산·의복과 예절·음식과 饗宴·풍속과 심성·喪葬祭祀·궁실·저택의 제도·승려의 생활·신앙·節日·음악·의관·군병과 食祿·수세·전도와 軍額·백성의 계급·路程(해로의 바람, 육로의 방위)·일행의 부서·관직·성명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임진왜란 직후 국교가 재개되기 위해 국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마도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 국서 개작 사건은 양국의 국교가 재개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당시 통신사행의 최대 이슈였다. 때문에 그 사건의 전말을 맨 앞에 두었다고 보인다.²⁰⁾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견문기를 기록할 때 참고한 서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해동제국기』도 정확한 참고 문헌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日本書紀』, 『古事記』 등의 책만 참고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런데 김세렴은 「實用篇」, 「海東記」, 「年代記」 등의 이름을 밝혀 놓았다.²¹⁾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승려가 佛經은 물론 經書를 읽고 아이들에게 『道德經』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서술하는 대목을 통해 당시 승려가 막부의 보호아래 학문을 할 수 있게 된 정황을 읽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²²⁾ 또한 비록 부정적으로 서술하긴 하였으나 출판에 대한 언급을 통해 당시 성행하는 출판업을 알 수 있게 하였다.²³⁾ 이 때 벌써 에도 일본의 경제는 날로 번성하고 있음을 매우 보수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사행기록의 견문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 이 사건은 정사 林統이 함께 사행을 다녀와서 남긴 『丙子日本日記』에도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21) 김세렴, 「견문잡록」, 『해사록』, 『해행총재』IV, 160, 161, 174, 182쪽.

22) 앞의 책, 171쪽.

23) 남용익, 「문견별록」, 『부상록』, 『해행총재』VI, 87쪽.

김세렴과 함께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온 黃屣 역시 『東槎錄』을 지으면서 「聞見總錄」을 함께 남겼다. 역시 항목을 나누지 않았지만 疆域·地勢·物産·宮室·衣服·飲食·器皿·刑法·婚姻·喪葬祭祀·風俗·男女·官制·分錄·田制·市廛·백성의 구분·俗節·音樂·지금의 關白·調興의 일·배 등의 순으로 기록을 하였다. 대개 일반적으로 전해오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南龍翼의 『扶桑錄』(1655)은 17세기 통신사행록 중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여기에 실린 「聞見別錄」은 17세기 견문록 중 가장 잘 정리된 기록이자, 방대한 기록이라 할 만하다. 항목은 倭皇代序·對馬島主·世系·官制·州界·道里·山川·風俗·人物 등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州界는 주로 위치와 소속된 군의 수와 규모 등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전 견문록에 비해 매우 자세하다. 道里는 사행노정에 있는 주요 지역의 위치와 거리, 지세 등을 기록해 두었는데 德川家康의 사당이 있는 日光山에 관한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風俗은 그 아래 成習·雜制·文字·衣服·飲食·園林·畜産·器用·節候·兵糧의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목의 체계를 2단계로 나누어 계열화하고자 한 시도가 엿보인다. 人物이란 항목을 넣은 것도 이전 견문록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것이다. 여기에 古來文士 20인, 古來武將 19인, 현재 執政이하 24인, 文士로 일컫는 자 8인, 醫官 2인, 僧徒 9인, 對馬島에서 인솔한 倭人 4인을 소개하였다. 이는 천황과 관백 이외에 당대 다양한 계층의 인물에 대하여 최초로 관심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 문사로 일컫는 자에서는 후지와라 세이카의 문하생으로 에도막부의 문형을 잡은 하야시 라잔(林羅山)과 그 아들 손자 등을 열거하였는데, 어느 정도 문장을 평가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눈에 띄이는 인물이 있는데 남용익은 그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李奎直: 그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본관이 전주이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전직이라 하였다. 전직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후중하며 다소 시율을 알고 글씨와 그림도 꽤 정밀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여 말을 하는데, 유연히 옛날을 느끼고 근본을 돌아보는 뜻이 있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대개 천성으로 타고난 양심은 없어지지 않는 데가 있다.²⁴⁾

저자는 일본에서 문인이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 8명을 들고 마지막에 李全直이란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며 그가 조선인의 후예라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이전직이 조선의 사신을 만나 올린 글과 시를 붙였다. 이는 전란 중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온 자들의 자손이 일본인의 일원이 되어 각 방면으로 퍼져나가는 한 단면을 조선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라 보인다. 이렇듯 「문견별록」은 견문록의 체계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자 한 것에서 견문록 저술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라 평할 수 있다.

이상에서 17세기 견문록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견문록은 대체로 견문록의 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海東諸國記』와 壬亂捕虜實記에서 체제와 내용을 본떠 저술하였다. 다만 견문록이라는 형식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초기에는 제목이 없고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견문록의 체제를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2) 18세기: 見聞錄의 다변화와 知識 추구

18세기에 들어서면 조선과 일본의 대내외적 정세는 매우 안정된 가운데 교류도 전례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조선침략의 공포에 기반한 화이론적 시각과 경계심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동시

24) “李全直: 其父我國人, 而系出全州, 故名其子全直. 全直爲人純厚, 稍解詩律, 筆畫頗精. 對我國人言, 油然而感舊, 反本之意, 至於流涕, 蓋其秉彝之良心, 有所不泯也.” 앞의 책, 107쪽.

에 일본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이 확대되었다. 18세기 견문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처음을 장식하는 견문록은 任守幹의 『東槎日記』(1711)이다. 여기에 「聞見錄」과 별도로 「海外記聞」란 것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聞見錄」은 여느 견문록의 체재와 내용이 비슷하나 「海外記聞」에서 蝦夷國, 阿難陀, 南蠻, 그리고 天主教 등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자세하다. 일본 자체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아직은 일본과 별도로 인식되는 蝦夷國(홋카이도 지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네덜란드와 천주교 등에 대한 관심이 견문록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통신사의 관심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미 『海東諸國記』에서 이처럼 동남아시아 해양국가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란이후 오로지 조선의 인식은 오로지 일본으로 집중되었고 일본에 대한 경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음을 그간 견문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이 「해외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이 1719년 통신사행을 다녀온 申維翰의 『海游錄』이다. 이 책의 견문록에 해당하는 「聞見雜錄」은 형식상 견문록의 형태를 띠지만 부분적으로는 필담록이기도 하다. 일본의 역사, 지세, 풍속 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雨森東과 나눈 筆談을 군데군데 삽입하였다. 이는 통신사행록 소재 견문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을 통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견문록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聞見雜錄」은 전대의 기록에 의존한 내용 보다는 실제 보고 들은 것으로 기록한 것이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새로운 내용을 많이 기술하였다는 점은 17세기에 보였던 견문록의 관습적 저술을 넘어서서 새로운 견문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일본에 대한 앎이 18세기 통신사행록의 핵심적 목적임을 신유한의 견문록에서 보다 분명히 하였다.

특히 「聞見雜錄」은 건문록 최초로 일본의 학문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성리학의 동향과 주요 학자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관심의 분야가 학문분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본의 학문이 조선의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음식에 대한 기술에서 이전과 다른 점이 확인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의 종류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유래까지도 설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에도시대 시정에서 패스트 푸드가 성행하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한 장면을 잘 포착하고 있기도 하다.²⁵⁾ 그 다음 일본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전 사행록보다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갈분을 잘 제조한다”²⁶⁾ “국중에 통용되는 척도의 정함을 알 수 있다”²⁷⁾ “전각의 묘함이 중국 사람에게 양보할 정도가 아니다”²⁸⁾ 등의 언급이 그것이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일본의 기술적 성장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일 가능성이 더 크다.

신유한은 또 일본의 핵심부인 에도막부의 긍정적 측면과 현재의 태평을 유지하는 근본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다. 이는 일본의 권력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신유한은 에도막부가 백성을 고단하게 하지 않고 보존하는 데 그 정치권력의 유지배경이 있다고 보았다.²⁹⁾ 이러한 시각은 적대적 시각에 기초를 둔 기존 시각

25) “심부름을 하는 자도 두 끼, 세 끼 밥을 먹는 일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들이겠다는 청이 없고 다만 배고플 때에 두어 개의 동전으로 유병 한 개나 소우 두세 개를 사 먹어 요기를 하고…” (신유한, 「문견잡록」, 『해행총재』Ⅱ, 60쪽.) 에도 시대 일본의 음식문화에 대하여는 모로 미야, 허유영 옮김, 『에도일본』, 일빛, 2006, 12~63쪽 참조.

26) 신유한, 앞의 책, 43쪽.

27) 신유한, 앞의 책, 47쪽.

28) 신유한, 앞의 책, 64쪽.

29) “가난함과 부함이 고르지 못한 것은 국법의 폐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다만 백성들이 한번 세를 바치고 나면 달리 사역되는 일은 없다. 관백 이하 각주의 태수가 출입할 때에도 다 인부와 말이 증발되거나 참이나 길에 공급하는 비용이

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국가와 그 규모에 대하여 매우 깊은 관심은 나타냈다. 南京에서 들어오는 중국서적을 통해 일본에 서적이 풍부함을 말하였고, 또한 네덜란드와 교역하는 長崎道에 대한 기술도 자세하다. 이것은 서양과의 교류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 인식의 맹아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형과 백성의 풍속이 중화와 비교해 볼 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나라 말엽에 여러 나라로 나뉘어 다투자 정치가 천자에게서 나오지 않아 제후와 대부가 나라를 자기 집처럼 삼아 서로 공격하니 백성이 명령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시황이 출현하여 주나라를 삼키고 천하를 통일하여 정령이 모두 위에서 나온 연후에 인재를 택하여 관직을 주고 업적을 살펴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는 법을 두었으니 한당 이후로 모두 이 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귀국은 바다 가운데 치우쳐 있어 전쟁의 화를 당해보지 못하였고 여러 주의 대부들이 세속에 익숙하여 아래위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운이 무궁하고 법 또한 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폐단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생긴 이래로 진실로 하나의 일, 하나의 물건도 억만년에 이르도록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이후 일본의 관제가 다시 진한과 같아질 때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³⁰⁾

없으므로 통신사의 행차에 대하여 많이 사역되는 인부 및 공급하는 모든 물자가 날마다 천이나 만으로 헤아릴 만하되 모두 관에서 돈을 주고 사서 털끝만큼도 백성에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니, 백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貧富之不均, 皆出於國法之弊, 而但見其民, 一納其稅, 無他責應. 關白以下各州太守出入之時, 皆無調發夫馬及站路供億之費, 通信使行許多役人及支供凡物, 日以千萬計, 而皆自官賃沽, 一毫不煩於民, 所以保民者以此.)” 신유한, 앞의 책, 54쪽.

- 30) “地形與民俗, 視中華不同故也. 周之末, 列國分爭, 政不由天子, 所以諸侯大夫, 以國爲家, 戰伐相尋, 民不堪命. 故秦皇出而吞周, 統一天下, 政令皆出於上, 然後有擇人授官, 考課限三年之法, 漢唐以下, 皆用此法. 貴國則僻在海中, 無隣國用兵之禍, 諸州大夫, 狃於傳襲, 而上下無異意. 此其國祚不窮, 而法亦不變, 所以至今無弊. 然自有天地人以來, 實無一事一物, 至於億萬年不改者. 知此後日本之官制, 復有如秦漢者乎.” 신유한, 앞의 책, 53쪽.

이는 우삼동과 필담 중에 나온 신유한의 말이다. 두 사람은 일본의 관백 중심의 정치제도를 화제로 삼고 말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신유한은 일본의 ‘關白制度’가 중국의 전국시대와 흡사하다고 지적한 뒤 중국에는 사라지고 없는 이 법이 일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위와 같이 말하였다. 즉 일본이 바다에 위치하여 외부의 침략 위협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유한의 시각이다. 매우 원시적이지만 일본의 존재와 현상을 지정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신유한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는 오늘날 일본학자인 가라타니 고진의 견해가 이와 매우 닮아 있다. 고진은 일본열도에는 옛날부터 수많은 종족이 도래해 살고 있었지만 군사적인 정복은 한 번도 없었으며 그러므로 억압도 거세도 없었다고 하였다.³¹⁾ 그리고 그 이유를 조선이 일본과 중국·몽골·러시아의 사이에 있어 이곳에서 침입이 저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한다면 신유한이 비록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정치경제적 존재기반을 지정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매우 드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己亥통신사행에 자제군관으로 따라간 鄭后儒가 남긴 『扶桑紀行』에는 짝막하지만 견문록이 전해온다. 『부상기행』은 상, 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권은 일기이며 하권은 사행도중 지은 시문을 묶어 놓았다. 견문록은 일기로 위인 상권의 말미에 이어져 있는데 제목은 물론 항목도 없이 짝막하게 기술되어 있다.

1748년 戊辰통신사행에서는 우선 견문록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이전 1-2편에 그치던 견문록이 이 해의 통신사행에서는 3편이 확인된다. 세편 모두 구성에서 이전과 비교하여 특이하다. 우선 洪啓禧의 『日觀要攷』³²⁾는 통신사행록에서 흔히 보이는 일기체 대신 국서

31)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개정판), 이매진, 2006, 120~126쪽.

32) 남옥의 『일관기』에 사행을 가면서 이 책을 들고 다니다가 분실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남옥, 『일관기』, 소명출판, 2006, 464쪽.

등의 공문서와 사행절차·의례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반부에 견문록에 해당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³³⁾ 이 부분만 보면 人物·姓名·皇系·地誌·道里·丁卯酬唱人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우선 사행 중 만났거나 알려진 인물을 먼저 기록한 것이 이전의 견문록에 보이는 기술순서와 다르다. 地誌란 항목 아래 地理·時節·物産·飲食·器皿·衣服·宮室·官制·賦稅·兵步·四民·風俗·音譯·文學·理學·佛法·醫學·女色·男娼 등의 내용을 열거한 것도 특이한 점이나 전체적으로 간략하다. 다만 황계에서 관백을 천황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천황의 계보에 속하게 한 점이 특이하다.³⁴⁾ 견문록의 대부분은 천황과 관백을 구분해놓고 있다.

曷命采의 『奉使日本時聞見錄』에 보이는 「聞見總錄」 또한 그 구성과 서술방식이 특이하다. 제일먼저 「倭京」, 「江戶」, 「對馬島」 이 세 곳에 대한 서술을 먼저하고 일반적인 문견록의 서술방식으로 서술한다. 일본사회를 기율이 있다고 하는 등 그 장점을 여러 군데 기술해놓았다. 또한 지형을 서술하는데 「各州分形記」라는 인용문헌을 일러두었다.

같은 해 저자 미상의 『日本日記』에도 견문록을 「總論」이란 이름 아래 기술하였는데 여기서는 아예 「왜경」, 「강호」, 「대마도」를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이 작품의 작자가 밝혀진다면 항목 배열에서 보이는 유사성의 배경이 밝혀질 것이다.

1763년 재미통신사는 통신사행록의 전개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

33) 홍계희가 별도로 이외의 통신사행록을 저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엄의 『해사일기』 재미년 10월 6일자 기록을 보면 “정묘년(1747년)에 정사 담와 홍계희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한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일관요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책인지 알 수 없다. 홍계희가 남긴 저서 가운데 『滄桑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所在와 내용 등의 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엄은 홍계희가 전대에 저술된 통신사행록을 수집하고 『해행총재』라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신사행록 전집의 시초라 할 만하다.

34) 홍계희, 『日觀要攷』,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48~50쪽.(면수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파일의 것을 따름.)

니는 사행이다. 이 해의 통시사행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통신사행록이 저술되었다.³⁵⁾ 견문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편이 확인된다. 우선 일반적인 제목을 쓰지 않았다. 「追錄」, 「叢記」, 「日本錄」, 『和國志』 등 네 편 모두 제각각 독특한 표제를 달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견문록이 사행록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된 텍스트로 저술된 것이 최초로 보인다는 점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증거의 『화국지』는 견문록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서를 지향한다.

네 작품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우선 吳大齡의 『溟槎錄』에 전해오는 「追錄」이라는 견문록을 남겼다. 현재까지 견문록의 저자로 알려진 이 중에서 역관은 오대령이 유일하다. 「추록」에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았으나 크게 단을 나누어 별도의 표시 없이 항목별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항목은 日本風俗(성정·남녀의 의복제양·기교·음식·도로·제례)·倭皇·東叡山·對馬島·龍蛇變後倭人懲創屢請和親(임란이후 왜가 통신사를 요청한 일)·琉球國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대개 간략하나 지형·역사·왜황의 세계 등의 순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순서에서 탈피하였다.³⁶⁾

南玉의 『日觀記』에는 말미에 「叢記」란 제목의 견문록이 있다. 그 아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영토·황계·源系·관백의 관제·세금·군사제도·물산·궁실·神佛·
학술·문장·그림과 글씨·의약·형벌과 신문·관문의 금지·불을 방비
함·의복·음식·시장·배·여색·관혼상제·소리와 번역·방축의 문자·
글자용법이 같지 않은 경우·어음·언문·칭호·말부리는 일·농업

여기서 학술·문장·그림과 글씨·의약·불을 방비함·여색 그리고 일본의 언문에 대한 항목 등은 재미통신사 이전의 사행록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항목이거나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통신사행에 대

35) 구지현, 『재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06.

36) 오대령, 『溟槎錄』,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153~158쪽.

한 총평이 있다. 조선후기에 왕래한 사행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들고 시정방향에 대한 원칙적 고찰을 진행했다. 후술하겠지만 사행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³⁷⁾ 대체로 「총기」는 간략하지만 체계적인 분류와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록이 체재의 개선을 통해 그 지식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 의한 결과라 보인다. 그리고 『일관기』에도 「총기」 못지않은 자세한 서술이 확인된다. 예컨대 고래잡이에 대한 서술은 총기에 없는 부분으로 일기 부분이 매우 자세하다.

대개 이 섬은 고래잡이로 이름이 나서 포경장이라는 벼슬도 있었다. 봄 화창한 날에 날랜 배 수십 척에 오르는데 모두 밧줄을 싣는다. 밧줄 끝에 큰 쇠를 잡아 묶어서 또 바다에 던져 놓고 고래를 만나면 엇갈려 찢러 낸다. 고래가 노하여 이리저리 날뛰면 그 놈이 가는 대로 밧줄을 내버려둔다. 그러면 마치 배가 나는 듯이 달린다. 그 놈을 따라서 5백~6백 리 적게는 3백~4백 리를 가면 고래가 비로소 기운이 대략 바닥이 나서 달아나는 것도 조금 느슨해진다. 이때 다시 그 밧줄을 잡아서 끌어당긴다. 달아나면 다시 놓아주고 멈추면 다시 끌어당긴다. 이렇게 만나절을 해서 항구에 가까이 오도록 유인한다. 그러면 거룻배를 탄 자들이 좌우에서 에워싸서 열 명 백 명으로 무리를 지어 날카로운 칼로 그 등을 마구 벗겨 내면 고기가 여러 배에 가득 찬다. 고기가 다하면 뼈가 드러난다. 고래가 아직도 노해서 성질을 부리면 더 찢러 대고 더 깎아 대어서 그 등을 가른다.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온 섬의 배가 모두 가득 찬다. 한 해에 고래잡이를 서너 차례 하는데 그 값이 수만에 이른다고 한다.³⁸⁾

사행이 일기도에 머물고 있을 때인 1763년 11월 18일 자 일기에 보이는 내용이다. 사행은 11월 13일 부터 12월 초2일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지루함을 느낄 때쯤인 18일 일본인은 항구 앞에서 고래잡이 놀이를 배

37) 김보경은 일관기의 특징으로 방대한 분량, 체계적인 구성, 치밀한 서술, 절제력 있는 서술을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통신사행록의 전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어떠한 맥락에서 드러난 특징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보경, 「남옥의 일관기 연구」,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38)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일관기』, 소명, 2006, 265쪽.

풀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 뒤에 이어서 이곳 사람들의 고래잡이를 통한 生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고래를 잡는 과정에서 고래의 경제적 가치에 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기에는 「총기」에 없거나 혹은 총기보다 자세한 대목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보면 『일관기』의 「총기」는 일기를 통해 보충될 수 있으며 또한 일기와 「총기」 부분은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成大中の 『日本録』은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1책은 「槎上記」라는 제목의 일기이며 2책은 「日本録」이라는 제목의 견문록이다. 덧붙여 「靑泉海游錄鈔」를 말미에 실었는데, 이는 신유한의 『해유록』에 수록된 「문견잡록」을 요약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성대중은 실상 요약은 거의 하지 않고 「문견잡록」에 항목별 제목이 없는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제목을 붙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스스로 「일본록」이란 견문록을 저술했는데도 왜 이 같은 일을 하였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첫 번째는 「일본록」을 역사지리에 대한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한 것을 신유한의 「문견잡록」으로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대중은 「일본록」의 항목을 지명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地形·對馬州·長崎道·筑前州·赤間關·熊野山·大坂·西京·浪華江과 琵琶湖·名護屋·箱根嶺과 富士山·小田原과 鎌倉·江戸로 나누어 서술하고 뒤에 최친중 살해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竺常의 글과 安龍福의 일을 붙였다. 아마도 애초에 신유한의 「문견잡록」이 풍속과 제도에 대한 내용중심으로 저술되었다는 판단에서 자기가 저술한 견문록에서 풍속과 제도는 문견잡록을 가져오면서 대체하고 나머지 내용을 서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두 작품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효율적인 체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해유록』의 「문견잡록」이 지닌 다소 모호한 성격을 분명히 하여 견문록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고쳐보고자 한 의도에서 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견잡록」은 견문록과 필담을 섞어놓

은 체제이다. 좋게 보면 건문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성대중이 보기에 항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 질서정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재구성할 목적으로 이를 항목으로 나누어 건문록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성대중이 나눈 항목은 다음과 같다.

封域·山水·天文·物産·飲食·衣服·宮室·官制·田制·兵制·風俗·方譯·文學·理學·禪家·醫學·女色·外俗·雜錄

이를 보면 성대중이 자신의 텍스트를 보완할 목적에서 신유한의 「문견잡록」을 뒤에 덧붙인 것이 분명하며, 두 텍스트를 아울러 볼 때 건문록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실은 것이 분명하다.³⁹⁾ 요컨대 성대중은 신유한의 「문견잡록」을 자신의 건문록과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재구성한 뒤 자신의 「일본록」과 병치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元重擧의 『和國志』는 건문록 중에서 가장 방대한 텍스트이다.⁴⁰⁾ 가히 건문록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하다. 무엇보다 『화국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독립된 텍스트로 이루어진 건문록이라는 점이다. 통신사행록에서 건문록이 독립된 텍스트로 이루어진 경우는 『화국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문록이 단순히 통신사행록의 한 부분으로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일본에 대한 지식의 총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원중거의 『화국지』는 조선후기 통신사행을 통해 저술된 건문록의 역사적 전개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텍스트라 할 수 있다.⁴¹⁾

39) 홍학회는 신유한의 「문견잡록」이 『일본록』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언급에서 그치고 더 이상의 고찰은 하지 않았다. 성대중 지음, 홍학회 옮김, 『일본록』, 소명, 2006, 10쪽.

40) 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한국고전연구』 1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이상에서 18세기 통신사행록의 견문록을 살폈다. 이 시기 견문록의 전개에서 보이는 특징은 17세기 견문록이 모색한 체제의 형성이 완성단계에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한 얇의 문제를 구체화 하면서 전방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일본을 이해하고자 했던 과정이 선명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학문, 서양과의 교류, 일본의 기술문명 등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인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을 얇의 대상, 즉 학문의 대상으로 분명히 설정하고자 한 것에 있다. 주자학 경전 중심의 성명의리치학을 학문이라고만 내세웠던 조선에서 17~18세기에 들어서면 상수학·의학·병법·농법 등 명물도수지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산되며 이 시기 학문의 하나의 큰 줄기가 형성되었다.⁴²⁾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이 시기 일본에 대한 학적 관심은 마치 연행록을 통해 중국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북학’이 형성되었듯이 ‘일본학’의 맹아적 모습을 띠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통신사행을 통해 들어온 일본의 서적 등 각종 정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지식인들의 지적 관심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내외적 정세가 급격하게 변동하여 덕천 막부시대에 통신사행은 더 이상 예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미통신사를 통해 활발한 기운을 내뿜던 ‘學日本’의 열기는 급격하게 식어갔다.

5. 마무리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록에 전해오는 견문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대별 흐름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41)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따로 장을 마련하여 진행할 것이다.

42)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98집, 진단학회, 2004.

통신사행록에 전해오는 견문록은 현재까지 알려진 약 40여 편의 통신사행록 가운데 18편이 확인된다. 이중 17세기에는 8편, 18세기는 10편이 전해온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저술에 형식적 모델을 제시하고 서술 태도에 영향을 준 전대의 텍스트는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와 강항의 『간양록』,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등의 임란포로실기이다. 이들 텍스트는 약 2세기에 걸쳐 저술된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소재 견문록의 서술방식과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견문록 저술의 연원이라고 보았다.

시대적 전개에서 조망해본 견문록은 크게 ‘견문록 저술의식과 체제의 형성기’와 ‘견문록의 다변화와 지식 추구를 지향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7세기와 18세기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된다. 초기의 견문록은 견문록을 저술하는 의식도 미약하여 단지 통신사행록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데 머물렀으며 아울러 그 체제도 체계적인 면모를 띠지 못했다. 이후에 점차 견문록에 대한 저술의식이 강화되고 그 형식도 체계화 되어갔다. 18세기에 들어서서는 통신사행록에서 견문록은 매우 다채롭게 저술되었다. 특히 계미통신사행에 이르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일본관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견문록이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생성의 핵심기반인 통신사행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쇠퇴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던 견문록의 일본 지식의 추구는 급격하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통신사행을 통해 전해오는 견문록은 조선후기 지식계에 일본지식의 전파와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생성된 조선후기의 일본관련 지식과 서적을 견문록과 비교하면서 조선후기 일본 지식의 전반적 양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참고문헌

- 국역 『해행총재』 I ~ XII, 민족문화추진회, 1974.
- 국역 『증보문헌비고』, 「교빙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 남 옥 지음, 김보경 옮김,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 2006.
- 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 2006.
- 辛基秀·仲尾宏 責任編輯, 『善隣と友好の歴史 大系朝鮮通信使』 1권, 明石書店, 1997.
- 원중거 지음, 박재금 옮김, 『화국지-와산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 2006.
-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승사록-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 2006.
- 오대령, 『溟使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정후교, 『扶桑紀行』, 교토대학도서관 소장본.
- 홍계희, 『日觀要考』,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개정판), 이매진, 2006. 120~126쪽.
- 강재언 지음, 이규수 옮김, 『조선통신사의 일본견문록』, 한길사, 2005.
-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 김보경, 「남옥의 일관기 연구」, 『한국고전연구』 1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마루야마 마사오, 김석근 옮김, 『일본정치사상사연구』, 통나무, 1995.
- 모로 미야 지음, 허유영 옮김, 『에도 일본』, 일빛, 2006. 12~63쪽.
- 미야케 히데토시, 김세민 외 옮김,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엮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한울, 200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손승철, 「해동제국기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일본국기와 유구국기의 내조 기사를 중심으로-」, 『강원인문논총』 15집, 강원대인문연구소, 2004. 275~323쪽.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외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안대회,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조선후기 명물고증학의 전통」, 『진단학보』 98집, 진단학회, 2004.

이노구치 아츠시, 심경호·한혜원 옮김, 『일본한문학사』, 소명, 2000. 281~289쪽.

조규익·정영문,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학고방, 2008.

陳必祥 지음, 심경호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128~146쪽.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 인식』, 해안, 2006.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역사학보』112집, 역사학회, 1986. 75~104쪽.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5. 1~166쪽.

후마 스스무, 심경호 외 옮김,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Abstract>

The Developmental Aspect of Gyeonmunnok in Tongsinsaengrok during the late Joseon

Jung, Hun-Sik · Nam, Song-Woo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 of that times of Tongsinsaengrok(the envoy mission account in Joseon era), especially studying Gyeonmunnok(the records of personal experience) in it.

Overall 18 copies of records (8 in 17 centuries, 10 in 18 centuries) are verified to exist among the 40 copies known so far. The true records of war prisone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presented the formal model of the writing style of Tongsinsaengrok during the late Joseon and affected the attitude toward writhing of it. The examples of true records are *Haedongjegookgi*(海東諸國記) by SinSukJu, *Ganyangrok*(看羊錄) by KangHang, *Wolbonghaesangrok*(月峯海上錄) by Jeong HeeDeuk. These texts had affected the writing style and attitude of Gyeonmunnok in Tongsinsaengrok written in 17 and 18 century. In this article, those records are considered to be the origins of Gyeonmunnok.

In the light of development by era, Gyeonmunnok can be divided into two distinctive periods; 'the formation of writing attitude and system of Gyeonmunnok' and 'the orientation toward diversification and pursuit of knowledge. The writing attitude of the earlier one was so insignificant that it was recognized just as a part of

Tongsinsaengrok. The systematic aspect was not in a good phase. In 18 century, Gyeonmunok was written in much more various ways. When it comes to Gyemitongsinsahang, new and diverse records were created by an unprecedented, or innovative view on Japan. However, the search of Japanese intelligence as a pursuit of qualitative change of Gyeonmunok was bound to radically decline because Tongsinsaengrok, the center of generating these knowledge, didn't progress anymore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Key Words : Tongsinsaengrok, Gyeonmunok, true records of war prisone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writing attitude, *Busangrok* by Nam YongIk, pursuit of knowledge, *Haeyurok* by Shin YuHan, Gyemitongsinsahang